4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구미 LIG-천안 현대전에서 LIG 이경수(11번)가 현대 하경민, 후인정의 블로킹을 향해 강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주·조경환 홈런포

KIA, 두산과 연습경기서 7-4 승리

KIA가 지난 3일 일본 니치지구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연습경기에서 7-4로 승리,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KIA는 이날 톱타자로 나선 이용규가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고, 이종범은 2번 타자로 출전, 3타수 1안타 2타점을 휘두르며 영양가 만점의 타격감을 뽐냈다.

장성호는 3타수 3안타 1득점, 서튼 역시 3타수 2안타 1타점을 때려냈다. 특히 5회 서튼의 대타로 출전한 조경환은 9회 두산의 마지막 투수 김명제로부터 좌월 솔로홈런을 뽑아내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지명타자로 출전한 이재주는 4회 좌월 2점 홈런을 포함,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선발 등판한 KIA 투수 진민호는 3이닝 동안 3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이어던진 이동현은 2이닝 동안 솔로 및 3점 홈런 포함 5안타를 맞으며 4실점(4자책)했다.

전병두는 2이닝 동안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 마지막 투수 김희걸도 2이닝 무안타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이날 김희걸은 직구 최고 구속 145km를 기록했다.

한편 KIA는 지난 2일 일본서 열린 두산과의 연습경기에선 0-1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온천 나들이 가요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지훈련중인 KIA 투수 김진우와 윤석민, 한기주(왼쪽부터)가 온천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연일 계속되는 강훈련으로 피곤함이 가득 묻은 얼굴 표정이 시골마을 개구쟁이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따뜻한 봄 햇살이 부담스러운 듯 눈을 찡그리고 있는 한기주의 표정이 재미있다.

대한항공, 프로 출범후 첫 PO 진출

흥국생명 2연패… 챔프전 직행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2연패를 달성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고 대한항공은 상무를 제물 삼아 프로 출범 후 첫 3강 플레이오프(PO)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해 통합 챔피언 흥국생명은 4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원정경기에서 김연경(19점)과 케이티 윌킨스(16점), 황연주(12점) 등 공격의 3각 편대를 앞세워 도로공사를 3-0(25-15 25-15 25-17)으로 셧아웃시켰다.

정규리그 1위에 필요한 매직넘버가 '1'이었던 흥국생명은 시즌 18승4패를 기록, 2위 도로공사(13승8패)를 승점 5점 차로 따돌려 남은 2경기 결과와 상관 없이 챔프전 직행 티켓을 얻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신영수의 21득점 맹활약에 힘입어 상무에 3-0(25-20 25-20 25-18) 완승을 거두고 3강 PO 진출을 확정했다.

프로 원년이었던 지난 2005년 V-리그 이후 지난 해까지 두 시즌 연속 4위에 그쳤던 부진을 털고 첫 포스트시즌에 나가게 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주전 레프트 강동진이 발목 부상으로 빠졌지만 높이와 파워 모두 상무를 압도했다.

또 현대캐피탈은 LIG의 추격을 3-1로 뿌리치고 파죽의 10연승 행진으로 시즌 22승5패를 기록, 선두 삼성화재(22승4패)를 승차 없는 2위로 뒤쫓았다.

삼성화재도 한국전력을 3-1로 누르고 선두를 지켰다. /연합뉴스

위창수, 선두와 3타차 공동 4위

PGA 투어 혼다클래식 3R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이틀째 선두자리를 지켰던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의 순위가 공동 4위로 떨어졌다.

위창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의 PGA내셔널리조트 챔피언코스(파70·7천48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2개,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묶어 2오버파 72타를 쳤다.

이로써 위창수는 중간합계 3언더파 207타로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와 함께 공동 4위로 밀려 단독 선두 자리를 중간합계 6언더파 204타를 친 마크 윌슨(미국)에게 내줬다.

5언더파 205타를 친 부 위클리(미국)가 2위, 4언더파 206타를 친 다니엘 초프라(스웨덴)가 3위에 포진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버디 6개를 보기 3개로 맞바꾸며 3타를 줄여 중간합계 이븐파 210타로 전날 공동 48위에서 공동 13위로 뛰어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경태 유럽골프 데뷔전 마쳐

2언더파 286타 40위권 진입

한국 남자 골프의 차세대 간판 주자 김경태(22)가 진한 아쉬움 속에 프로 데뷔전을 마감했다.

김경태는 4일 태국 푸껫의 블루캐니언골프장 캐니언코스(파72.7천179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조니워커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 등을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친 김경태는 40위권에 입상, 난생 처음 1천만원이 넘는 상금을 받았다.

이승엽 3타수 무안타

요미우리 1안타 완봉패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호조의 타격감을 이어가지 못하고 방망이 침묵을 지켰고 요미우리는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마운드에 눌려 1안타 완봉패 수모를 겪었다.

이승엽은 4일 일본 후쿠오카의 야후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와 시범경기에 1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으나 삼진 2개 등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전날 같은 팀과 경기에서 3타수 2안타의 불꽃타를 선보였던 이승엽의 방망이가 차갑게 식은 것.

요미우리는 8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뽑지 못하고 출루하지 못하다 와키야 료타가 9회 2사 후 중전안타를 날려 퍼펙트 패배를 간신히 모면, 0-5으로 1안타 완봉패를 당했다.

요미우리는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이승엽-루이스 곤살레스로 이어진 중심타선이 단 한 개의 안타도 뽑지 못하는 심각한 타격 부진 속에 결국 5점 차 완봉패를 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테크노 골리앗' 넘어지다

최홍만, 美 마이티 모에 생애 첫 KO 패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7)이 올해 첫 K-1 대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KO로 패배했다.

최홍만은 4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2007' 대회에 출전해 복서 출신인 미국의 마이티 모(34)에게 강력한 오른손 훅을 허용하며 2회 50여 초 만에 KO로 무릎을 꿇었다.

지난 해 9월 일본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개막전'에서 제롬 르 밴너(프랑스)에게 0-3으로 판정패한 뒤 약 6개월 만에 맛본 패배였다.

최홍만은 이로써 지난 해 12월 'K-1 다이너마이트'에서 바비 오로건(나이지리아)전 1회 TKO승에 이어 연승 행진을 이어가지 못한 채 K-1 데뷔 이후 세 번째 패배(10승)를 기록했다.

218cm의 최홍만은 입식 타격 룰로 치른 이번 대회에서 키가 31cm나 더 작은 모와 대결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듯 노래를 부르며 링 위에 올랐지만 경기는 예상 밖으로 끝이 났다.

복싱이 주특기로 강력한 펀치가 장점인 모에게 이렇다할 공격을 펼치지 못한 채 불의의 일격으로 어이 없는 패배를 당했다.

1회부터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벌이며 왼손 잽과 니킥을 날리는 최홍만에 맞서 모는 온 힘을 실어 오른손 훅과 스트레이트를 수차례 뻗으며 '한방'의 기회를 노렸다.

상대의 강펀치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인 최홍만은 2회 초 다시 왼손 잽으로 기선을 잡으려 했으나 모가 날린 기습적인 오른손 훅에 왼쪽 얼굴을 강타 당했다. 최홍만은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뒤틀리며 쓰러졌고 심판은 경기를 바로 중단시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 중계

5일(월)

▲2007 PGA 혼다 클래식 FR(05 : 00·SBS스포츠·SBS골프채널)

▲MBC탁구 왕중왕전 결승전(13 : 35·MBC)

▲WTF 국제태권도대회(14 : 00·KBS2)

▲2007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 : 우리은행〉(16 : 50·SBS스포츠)

6일(화)

▲2007 메이저리그 시범경기(03 : 50·MBC ESPN)